

DAY  
**01**


오늘성경통독 사무엘상 18장 □ 19장 □ 20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Date / /

**말씀 사무엘상 18:7-9**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크게 승리한 뒤에 성으로 돌아오는 군대를 환영하는 인파들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를 맞이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라고 노래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은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질투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시기과 질투의 마음을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말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삼상 18:8).

사울은 사람들의 노랫소리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 빈틈에 마귀가 시기과 질투의 마음을 넣어 버리자 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향한 미움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처리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그것을 “그 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삼상 18:9)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주목해야 했고, 그 마음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만일 사울이 그때 다윗을 주목하던 시선을 돌려 자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면, 그의 남은 시간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 허송세월하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끝까지 다윗만 주목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기 마음에 들어왔던 작은 시기과 질투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거의 미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밖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를 주목하고 살다 보면 사울처럼 그것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을 주목해야 하고 내 안에 들어온 죄 된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면,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 그 죄를 그냥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주목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내 안에 죄 된 것은 날마다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1 오늘 내 마음에 들어왔던 죄 된 마음은 무엇이 있나요?

나눔2 나는 내 안과 밖에 있는 것들 중에서 무엇을 더 주목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2**

오늘성경통독 사무엘상 21장 □ 22장 □ 23장 □ 2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Date / /

**말씀 사무엘상 21:12-14**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밖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주님께 두려움을 내려놓으시다**

 가드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섯 도시 중의 한 곳입니다. 게다가 가드는 다윗이 죽었던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삼상 17:23). 그러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는 것은 자신을 철천지원수로 여기는 적진에 자기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다윗에게는 이미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드 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을 마주하는 순간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영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자신이고, 그들의 군사들을 수없이 죽였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대로 있다가는 꿈쩍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다윗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합니다. 대문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침을 흘리며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결국 가드 왕 아기스는 이런 미친 사람을 당장 쫓아내라고 명령했고 다윗은 살아서 그 성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입니까? 한때는 블레셋을 벌벌 떨게 했던 다윗이라는 용맹한 장수가 적군의 수장 앞에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목숨을 연명해야 했던 이 날이 다윗의 평생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어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시 34:1).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씀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시 34:4). 다윗은 그 치욕스러운 날의 두려움을 그냥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분께 간구하므로 두려움을 벗어버렸습니다.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 사울을 피해서 원수 블레셋의 땅에 피신하게 만들었던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두려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치욕스러운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토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감정의 늪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주님을 찬송하는 기쁨의 인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과 수치심이 찾아올 때,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찾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와 치욕의 날을 기쁨과 찬송의 날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 ▶ 나눔 1 다윗처럼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일이 있나요?
- ▶ 나눔 2 두려움과 염려, 수치심과 같은 감정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했었나요?
- ▶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3**

오늘성경통독 사무엘상 25장 □ 26장 □ 27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Date / /

**말씀 사무엘상 25:36-38**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등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의 소유를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바란 광야에 머물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갈멜이라는 지역 근처에 머물면서 나발의 양과 염소들을 도적들과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발은 아주 편하게 양과 염소를 잃지 않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그러니까 양을 키우는 사람의 집에 큰 잔치가 있는 날에 나발에게 약간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할 뿐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다윗을 무시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갔고,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은 식량을 꾸짖하게 챙겨서 다윗에게 나가 나발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고 다윗의 화를 풀어줍니다. 그 후에 집으로 돌아온 아비가일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누구 덕분에 나에게 있게 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발의 소유, 그가 거느렸던 수많은 양과 염소가 어떻게 그의 손에 쥐어졌습니까? 양과 염소를 풍족하게 먹일 만한

갈멜이라는 비옥한 토지를 그가 만들었습니까? 양과 염소를 잃지 않도록 지킨 것이 자신입니까? 아닙니다. 나발은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토지의 소산을 이용하고, 다윗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많은 양과 염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발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도움 따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그를 보호해 준 대가로 약간의 식량을 요구했을 때 다윗을 모욕하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나발은 '바보'라는 뜻이고 아비가일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은혜 값은 안중에 없는 인생, 남에게 베풀기를 야속하게 하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는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나발처럼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되면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서 그동안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평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발과 같은 바보 같은 인생입니까? 아니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인생을 다듬어 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눔 1 나의 소유가 있기까지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은 누가 있습니까?  
나눔 2 나에게 주어진 소유를 남을 위하여 사용한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4**

오늘성경통독 사무엘상 28장 □ 29장 □ 30장 □ 31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Date / /

**말씀 사무엘상 30:23-24**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들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밀하게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그 줄기를 타고 뿌리로 가보면 아마 그 근본적인 차이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나의 주님인가?”를 살펴보면, 지금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 일상생활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비롯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맞으십니까? 정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가져오는 두 부류의 인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인생의 주인, 즉 자기 삶의 모든 행위의 주관자가 자기 자신이라고 여기는 사

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입니다(삼상 30:22). 다윗과 함께 빼앗긴 아내와 소유물들을 찾기 위해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이백 명은 체력이 되지 않아서 중간에 머물렀고 나머지 사백 명은 다윗과 함께 아말렉을 쳐서 그 아내들과 소유물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백 명 중에 일부 사람들이 전쟁에 직접 나서지 못하고 중간에 머물러 있던 이백 명의 사람들은 처자들만 데려가고 소유물들은 가져가지 못하게 하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삼상 30:22),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말렉을 쳐서 이긴 것, 이겨서 처자들과 물건들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 ‘우리’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삼상 30:23)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을 이기게 하시고 처자와 재물을 찾게 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과 ‘악한 자, 불량배’로 보시는 인생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 ▶ 나눔 1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있습니까?
  - ▶ 나눔 2 내 인생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과 같은 인생입니까? 불량배 같은 인생입니까?
- ▶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


DAY  
**05**

오늘성경통독 사무엘하 1장 □ 2장 □ 3장 □ 4장 □  
오늘가정예배 찬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Date / /

**말씀 사무엘하 1:17-19**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도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었드러졌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세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은 자기 옷을 잡아 찢고 슬피하여 울며 금식합니다(삼하 1:11-12).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1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사울 때문에 도망을 다니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원수인 블레셋의 땅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밤낮으로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던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신나서 잔치라도 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보면 다윗에게서 기뻐하는 내색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정말로 슬피했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옷을 찢고 울며 금식할 뿐 아니라 사울을 위한 노래를 지어서 그것을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오늘 붙들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지어 그를 추모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를 그렇게나 괴롭혔던 사울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사람으로 표현하고(삼하 1:23)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던 유능한 왕으로 표현(삼하 1:24)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으로는 사울이 정말 밋기도 하고 그가 죽은 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마음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악한 마음으로 무너지는 사울을 바라보실 때 느끼셨던 마음, 그렇게 세웠던 사울이 자기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죽게 되는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보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이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위해서 슬피할 수 있었고 그를 기리는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은 당연히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느껴지는데도 내 마음을 더욱 우선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사는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대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나눔 1 오늘 가족들에게 내 마음으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 나눔 2 오늘 가족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가정 기도 :